

# "156일간의 절규와 투쟁" ...서울본부 주관 아리셀 추모문화제 열려

서울본부 | 승인 2024.11.27 15:02



11월 26일,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156일을 맞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시민추모문화제가 열렸다.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아리셀 참사대책위는 추모제를 통해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피해자 권리 보장을 촉구하며, 더 이상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에스코넥과 삼성의 책임을 물었다.

이번 집회는 애도를 넘어 위험의 이주화, 외주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취지로 중대재해를 방지하고, 노동자 안전을 외면하는 삼성과 에스코넥의 책임을 강하게 물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참사의 원인은 기업의 탐욕과 구조적 불법 행위"라며 "23명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다짐했다.



박순관 에스코넥 대표이사는 이날 열린 재판에서 참사의 책임을 전면 부정하고, 모든 과실을 자신의 아들인 박중언 본부장에게 떠넘기는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김진익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은 "후안무치하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저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자"며 "아리셀과 원청인 삼성은 노동자의 죽음을 방치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의 투쟁으로 저들이 외면하고 있는 교섭의 장으로 끌어내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반드시 이뤄내자"고 외쳤다.



양한웅 아리셀참사대책위 공동대표는 투쟁경과 보고를 통해 "교섭 요구조차 외면하는 에스코넥과 박순관은 법망을 악용해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며 "기업의 반노동적 행태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더 많은 노동자의 희생이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유청희 활동가는 "삼성전자가 협력사의 안전 관리를 외면하는 이상 중대재해는 멈추지 않는다"며 "중대재해는 기업이 최소한의 안전조치마저 외면한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지역 집중연대로 온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동지부 이해종 지부장은 "이번 참사는 이주 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를 구분하지 않고 위험을 외주화 하는 사회의 민낯을 보여준다"며, "모든 노동자가 동일한 권리를 보장받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귀를 열고 연대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강남 한복판의 화려한 빌딩들 뒤에서 이른 새벽 김밥 한 줄로 하루를 시작하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우리는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무금융노조 김인식 지부장은 "이번 아리셀 참사는 노동자를 단지 도구로 여긴 기업의 탐욕과 비윤리적 경영으로 발생한 비극"이라며, "삼성 같은 대기업들이 이윤 추구에만 몰두하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기업 행태는 결국 모든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며, 이 시스템을 바로잡기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방치할 수 없다.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이번 투쟁을 통해 그 시작을 알리자"고 결의했다.

한편, 문화제 이후 참가자들은 삼성사옥을 한 바퀴 도는 행진을 진행하며 노동자 희생의 책임을 묻는 구호를 외쳤다. 행진 중 삼성화재 애니카지부와 유가족협의회 김태윤 대표는 "참사의 진실을 끝까지 밝히고 책임자 처벌과 유가족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연대를 멈추지 않겠다"고 결의했다.



서울본부 kctusrc1@gmail.com